

충남 관광자원 특성별 관광상품 제공방안

박근수 | 배재대학교 교수

I. 서론

전국이 관광지로서 개발되는 가운데 충남 관광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충남 관광은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남 관광의 가장 큰 강점은 인지도가 있고 경쟁력있는 축제가 많다는 점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가장 많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충남도의 지역자치단체들은 축제 육성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금산인삼엑스포, 벤처농업박람회 등 다양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외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축제와 대형 이벤트와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축제기간에 방문객을 많이 모객하는 단계에서 축제로 형성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그 지역을 사계절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연중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관광개발 노력도 하고 있다. 당진의 '농촌체험나드리협의회'는 기존의 관주도형 관광상품 개발에서 민간 인적 자원을 육성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문가 집단의 호응을 받아 긴밀하게 연결하여 차별화된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 하려는 시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충남으로의 접근성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충남간의 거리는 1시간대로 단축되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의 관광객수는 2001년의 3900만명에서 2002년에는 4500만명으로 늘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1년만에 15.1%나 증가하였다 (충청남도, 2005). 이는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관광매력도에 일

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이 있는 반면 충남관광의 최대 약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적으며 과거 10년 동안 인바운드 관광부분이 전혀 증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충남관광이 국제화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한류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정책이 충청남도에서도 필요하다. 인바운드 관광에 비해서 국민국내관광은 다소 활성화 된 편이나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관광소비자의 성향은 점점 더 감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관광상품도 스토리가 있는 감성적인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충남 관광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충남 관광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된 충남 관광자원의 특성을 근거로 관광상품 제공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충남 관광시장 분석

1. 인바운드 현황

2000년 기준 충청남도 방문 관광객수는 약 5,78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관광객중 내국인 관광객은 99.04%인 5,625만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0.96%인 약 55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아산시,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의 순으로 방문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중 지역별 점유율은 아산시 43.97%, 공주시 16.33%, 부여군 11.7%에 달해 이들 3개 지역에 충청남도 방문 외래관광객의 72%를 차지하는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는 2000년의 외국인 방문객 방문 추이를 특정지역으로 편중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 충청남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76.6%가 아산시를 방문하였으며 예산군이 7.2%로서 2위를 기록하였다.

〈표 1〉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 (2006.1-2006.12)

충청남도 지역	충청남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명)	비율(%)
천안시	16,033	0.3
공주시	27,937	5.37
보령시	1,973	0.38
아산시	398,131	76.59
서산시	-	-
논산시·계룡시	710	0.14
금산군	196	0.04
연기군	128	0.02
부여군	31,130	5.99
서천군	51	0.01
청양군	188	0.04
홍성군	563	0.11
예산군	37,545	7.22
태안군	4,607	0.89
당진군	653	0.12
계	519,845	100.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6). www.tour.go.kr/stat 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충청남도로의 외국인관광객들의 방문이 연도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충청남도 각 지역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추세 변화는 주목할 만 하다.

2006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국적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방문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수 (2006.1-2006.12)

국 적		관광객수	전년대비 상승률 (%)
아시아주	일본	2,338,921	-4.1
	중국	896,969	26.4
	대만	338,162	-3.8
	필리핀	248,262	11.5
	홍콩	142,450	-14
	태국	128,555	14
	말레이시아	89,854	-7
	소계	4,551,995	2.5

중동	52,688	14.2
미주	673,118	5.2
구주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534,834	5.1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91,516	7.4
아프리카주	21,090	16.1
기타	229,805	-14.5
계	6,155,046	2.4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6). www.tour.go.kr/stat 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아시아주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 일본관광객들이 2,338,92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 -4.1%로 감소하였다. 아시아주에서 2위 방문국인 중국은 896,969명으로 일본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26.4%로 탄력적이며 잠재성있는 인바운드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2위 방문객을 보이고 있는 미주는 673,118명으로 전년대비 5.2%가 늘어 지속적인 성장성이 있는 시장임을 보여주었다.

2. 국민 국내관광 현황

2006년 충청남도 오는 국민국내관광 통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충청남도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총 85,180,822명으로 전국 전체 내국인 관광객 628,610,259명의 13.6%이다. 충청남도의 국민국내관광 지역별 비중은 태안군이 20,622,886명 (24.2%)로 1위이며 보령시가 19,648,953명 (23.1%)으로 2위이다.

<표 3> 충청남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수 (2006.1-2006.12)

충청남도 지역	충청남도 방문 내국인 관광객수	비율(%)
천안시	3,297,697	3.87
공주시	2,777,942	3.26
보령시	19,648,953	23.1
아산시	5,778,608	6.78
서산시	3,271,110	3.84
논산시 · 계룡시	300,023	0.35
금산군	1,404,859	1.65

연기군	862,820	1.01
부여군	4,183,112	4.91
서천군	7,498,717	8.8
청양군	1,266,540	1.49
홍성군	2,929,464	3.44
예산군	6,725,028	7.89
태안군	20,622,886	24.2
당진군	4,613,063	5.42
계	85,180,822	100.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6). www.tour.go.kr/stat 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Ⅲ. 충남 관광자원 특성분석

1. 관광기반시설

외국관광객이 충청남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 등 교통기반시설과 관광기반시설이 필요하므로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항만계획은 총 사업비 1조8995억원을 투자하여 38개 항만을 조성예정인데 무역항 4개, 국가어항 5개, 지방어항 29개 항만을 조성예정이다. 충청남도 SOC 개발계획은 무역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항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2006).

최근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관광목적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충남지역은 이러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최대 수혜지역의 하나이다. 이처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체계의 정비와 필요하다. 행정복합도시의 조성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충남의 광역교통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이와 연계된 서해안과 내륙의 지역간 교통체계 정비에 따라 주어져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서해안의 해안일주도로 조성으로 인근 도서와의 원활한 연결은 충남 해안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윤양수, 2006).

2. 충청남도 관광 개발계획

충청남도의 관광 개발계획은 관광권역별 관광거점과 대도시 배후 테마관광지 개발과 관광거점 연계형 관광명소의 발굴, 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방문객의 성향을 고려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의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는 2006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수정하면서 충청남도 지역을 5대권역으로 나누고 중국을 포함한 환황해권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이다 (충청남도, 2006.12.22). 이 수정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충청남도를 5대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기능특화 및 광역적 연계·협력 개발을 통하여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광범위하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 충청남도 관광상품 분석

충청남도는 전국에서도 축제가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집계한 전국 726개 축제 중 67개 축제가 충남에서 열리며 이중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축제도 상당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축제를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최근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었던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06년에 예산에서 개최된 벤처농업박람회, 2002년에 개최된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010년에 개최예정인 중진대백제전도 이러한 충청남도 각 지자체의 축제의 국제화 의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 축제와 민속놀이, 지역문화행사를 지역단위의 자체 축제에서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킨다. 금산인삼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등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테마로 관광상품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2006년 언론 매체에 노출된 충청남도 관광시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한 ‘내나라 여행 함께 가꾸기 답사보고서’에 실린 이색 여행 코스에는 대구광역시의 ‘팔공 기원투어’ (일명 ‘소원빌러오세요’), 경상북도의 ‘신라 천년의 역사 속으로’ (일명 ‘골굴사에서 선무도 체험’), 충청남도 예산의 ‘우리 고장에 오셔서 형제간 우애를 떠올려 보세요’ (일명 ‘의좋은 형제

의 고장')이 포함되어 있다.

'내나라 여행 함께 가꾸기 답사보고서'에는 주5일 시대를 맞아 집집마다 '어디로 떠날까'가 고민인 요즘, 손님을 끌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우리 고장 최고의 여행 코스'가 실려 있다. 모두 1박2일 일정으로 큰 주제 아래 여행지를 묶어 코스를 짰다. '검증' 작업도 거쳤다. 강원·전남·충북·충남·경북·경남·경기도를 비롯해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시 등이 추천한 총 30군데의 여행 코스 대로 '내나라 여행 답사단'이 둘러보고 평가를 내렸다. '내 나라 여행 답사단'은 한국여행작가협회·네이버 카페 '여행매니아'·다음 카페 '모놀과 정수'와 '일상탈출'·싸이월드 클럽 '2030 추억만들기' 회원 63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해서 소개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내나라 여행 함께 가꾸기 답사 보고서'를 올 상반기 중 책자로 정리해 펴낼 예정이다 (조선일보, 2007. 2.8).

충청남도 추천한 코스는 (제1일)예당저수지('의좋은 형제' 산책로 등)→점심식사(민물어죽·붕어찜)→추사고택→예산 전통옹기 만들기→덕산온천→(제2일)남연군 묘소 답사→화전리 사면석불→점심식사(삼다리 더덕정식·산채비빔밥)→충의사→한국고건축박물관이다. 보고서의 평가단 총평은 이와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예산코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테마로 삼았지만 차라리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는 것이며 수덕사를 여행 코스에 포함시키고 덕산장이나 예산장에서 더덕 등 특산물 쇼핑을 권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07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서울 COEX에서 개최되는 '2007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공주·부여의 백제문화'를 비롯한 도내 각종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충남 홍보관에서 선보인 각종 관광상품은 충청남도가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2007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내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박람회로 道는 12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충남홍보관 부스 24개를 설치, 예전보다 큰 규모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홍보에 나섰다.

홍보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충남의 산, 바다, 백제문화, 문화관광축제 등을 홍보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가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천안시 목각판 태극기 탁본, '나도 안중근' 손도장 찍기, ▲공주시 백제의상(왕과 왕비 되어보기), ▲보령시 머드마사지 ▲논산시

자개공예 만들기 ▲금산군 인삼씨앗 고르기 ▲부여군 백제8문양 탁본 ▲서천군 한산 모시차 시음 ▲청양군 장승 깎기 ▲홍성군 떡메 치기, 두부 만들기 ▲예산군 추사체 탁본 ▲태안군 허브비누 만들기 ▲당진군 황토 물들이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천안 호두과자, 공주 밤, 보령 머드화장품, 논산 젓갈, 서천 한산소곡주, 홍성 유기농 농특산물, 예산 사과, 당진 쌀 등 지역특산물을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2.5).

당진군은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문화재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30억원을 들여 송악면 기지시 일원에 1000㎡규모의 전시관을 건립하고 세계 각국의 줄리기와 교류를 추진한다. 국내 최초의 카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성지와 합덕성당, 신리공소로 이어지는 성지순례 코스를 구축하고 유스호스텔 건립을 병행하고 있다.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 장군 사당을 건립하는 한편, 소난지도 150인 의병충 정비 및 산재된 불교 문화재를 정비, 연계 코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전일보, 2007.2.22).

태안군은 31개의 해수욕장과 42개의 항·포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관광태안 성취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시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우선 2020년까지 총 8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태안기업도시가 올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사업 원년인 올해 군은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사인 현대건설(주)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 지역의 발전방향과 맥을 같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태안 기업도시는 지난해 12월 27일 개발계획 승인 이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 중에 현대건설(주)과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만리포지구 관광휴양지 조성, 안면도관광개발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동북아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안면-보령간 연육교 건설, 태안-만리포간 도로 4차선 확포장 등 교통망과 각종 위락시설, 숙박·편의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충남도에서 2009년도에 재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관광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00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수용기반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전일보, 2007.2.20).

부여군은 2007년 2월 16일 상황실에서 김무환 군수를 비롯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 및 산업화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향토자원(1차,2차,3차)중 타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선정 차별화 할 수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 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나온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설명회 자리였다. 향토지적재산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성 또는 정통성을 지니며 경제적 이용 가능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용역결과 개발된 제품의 브랜드화 및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성이 취약한 기존의 향토자원에 기능성을 부여하고 건강과 관련 웰빙상품 개발에 의한 지속적인 향토산업발전, 지적자산을 체계화하고 산업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해 특화된 문화 콘텐츠 확보 및 관광문화 상품으로 연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무환 군수는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것으로 만드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토지적자산을 조사 발굴하고 부여군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한다면 산업화의 미래는 밝다”고 강조했다 (대전일보, 2007.2.17).

IV. 충남 관광상품 제언

1. 충청남도 관광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제공

충청남도로 오는 외국인관광객들은 아산시가 398,131명으로 전체 충남 외국인방문객의 76.6%로 2위인 예산군 (37,545명, 7.22%)보다 단연 인기가 높았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은 아시아주에서 오는 관광객에 집중하면서 미주, 구주 (유럽/남미)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관광상품 준비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아시아주 관광객중 일본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은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관광시장이다. 일본관광객들은 2,338,921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비중중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 -4.1%로 감소하였으며 아시아주에서 2위 방문국인 중국이 896,969명으로 일본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26.4%로 탄력적이며 잠재성있는 인바운드 시장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관광시장별 관광행동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상품중 <표 4>에서 제시된 국가별 관광객 성향을 고려하여 지역의

〈표 4〉 외국인 관광시장별 특성과 요구사항

지역	시장특성	요구사항
유럽/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방한외래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의 여가성향은 스포츠관람·참여, 공연장·전시회 등 방문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 자연관광 등도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일코스 또는 1일 코스의 전시, 공연 안내 (위치, 교통수단, 간략 설명 첨부) 소책자 배포 - 각국의 국가 (영국 자전거경주 등) 체험이벤트 - 외국인대상 상설공연 또는 공원 및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공연마련 - 한국을 가까운 나라 이미지로 홍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인당 GNP증가로 '중소득 국가'에 속하므로 해외여행객의 증가 예상 -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강한 지방문화, 목적지의 역사탐방, 독특한 미각관련 관광대상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상, 관혼상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전통 민속놀이 소개와 함께 체험관광 개발 - 식도락을 위한 전문식당 개설 및 신상품개발 - 한국의 '친절성' 홍보 - 중국관광객 선호 탐방지역에 중국어 안내판 설치, 중국어 브로셔 제작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하반기 경제위기로 소비위축 - 장거리 아웃바운드 여행은 역내 (동아시아) 여행으로 대체될 전망 - 동북아 여행시 쇼핑, 자연환경, 사적지, 문화유적지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쇼핑·자연경관관광 및 신변안전 홍보 강화 - 동남아용 관광안내지도 작성

자료 : 김시중 (2001), 2008베이징올림픽 특수 대비 충청남도 관광수용태세 확립방안, 충청남도, 대전충남행정학회.

문화를 체험하며 미각관련 음식체험을 선호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1박2일 코스도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예산의 1박 2일 코스는 (제1일)예당저수지(‘의좋은 형제’ 산책로 등)→점심 식사→추사고택→예산 전통옹기 만들기→덕산온천→(제2일)남연군 묘소 답사→화전리 사면석불→점심식사→충의사→한국고건축박물관이다. 단일 지역별 관광상품도 준비해야 하지만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권역별 관광상품을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특성별로 제안할 수 있다. 미주, 유럽, 남미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생태, 휴양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해양관광권 (보령, 태안, 서천)의 관광상품은 이들을 위한 좋은 관광소재가

될 것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트렌드는 한류이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한류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류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하는 강원도의 경우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2006년 12.11일에서 14일까지의, 3박 4일간 홍콩의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여행 전문지 등 8개 매체, 15명의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 용평의 펀스키페스티벌과 함께, 최근 중화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류 웰빙체험상품을 소개하는 강원관광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들 일행은 강원도지사배 스키/보드/썰매 대회 등 금번에 10주년을 맞이한『06/'07 펀스키페스티벌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한편, 메주와 첼리스트, 레일바이크, 여치카페, 여름치카페, 아우라지 처녀상 등 최근 중화권 (홍콩·대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선지역의 '한류 웰빙체험' 관광지들을 방문하고, 12. 8일 개장하는 강원랜드의 하이원 스키장과 스키전용열차도 체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을 대표하는 동계관광상품으로서 올해로 이미 10년째에 접어드는 용평의 펀스키페스티벌 (Fun Ski Festival)은 올해 12월 10부터 13일(3박4일간)까지, 1회차를 시작으로 '07년 3월 5일까지 7회차에 걸쳐 숙박과 스키강습, 스키대회, 만찬 등 스키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형 관광상품으로서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 올해부터는 그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모객 지역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까지 확대하여 6개국 33개 모객 여행사를 통해 10,700여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는 향후 이러한 이벤트형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일본지역을 타겟으로 한 신규 스키이벤트상품 개발을 계획하는 한편, 펀스키페스티벌 등의 관광상품의 중국 대륙시장 진출을 위해 청도와 서안 등의 언론인들을 초청하는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동계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마케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 도정소식, 2006.12.9).

동계관광상품으로 충남은 무주의 스키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준비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충청남도로 오는 내국인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태안군이 20,622,886명 (24.2%)로 1위이며 보령시가 19,648,953명 (23.1%)으로 2위이다. 내국인관광객들 대상으로는 계절별/관광시장 지역별 관광상품 제공방안이 유효해 보인다. 태안, 보령, 서천은 충청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5대 권역중 해양관광권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주로 여름을 중심으로 보령머드축제,

2009년에 재개최를 추진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등의 축제와 연계된 지역 관광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백제·금강문화관광권(공주, 논산, 부여, 청양, 금산, 서천, 계룡) 지역은 봄, 가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금산인삼축제, 백제문화제, 한산모시제와 연계한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생태관광자원을 아우른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2. 충청남도 관광기반시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의 관광협력네트워크는 관광교통분야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관광접근로는 항공로, 육로, 해로의 교통망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차원의 지원을 하는 전세기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인접지역의 항공로를 활용하여 일본, 중국과의 항공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환황해권 내에는 10개의 해상노선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11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고, 환황해권에서 관광지리적 범위는 항공교통의 발달로 1일여행권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역, 투자, 비즈니스, 물류, 관광 등을 포함하는 통합지역이 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까지 연결해주는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충청남도가 한국의 중앙이라는 잇점을 부각시켜주는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다. 서해연안 7개시·군의 내국인관광객수는 2001년의 3,900만명에서 2002년에는 4,500만명으로 늘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후 600만명이 증가하여 15.1%가 급증하였고 서해연안 7개 시·군으로의 외국인관광객은 1995년에는 168,127명에서 2002년에는 400,429명이 방문하여 2배 이상인 232,302명이 증가하여 12.4%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내국인들의 주말 여가 이동패턴도 고속도로 개통 전 동서에서 개통 후 남북으로 전환되어 서해연안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객 중 수도권 거주자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71.8%를 차지하고, 내륙과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한국 국가 경제 대동맥으로서 인천-목포간 주행시간을 이전의 7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키고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아산·대산항과 군산·목포항을 연계하고 있다.

고속도로 주변에 인천 남동, 시흥, 반월, 아산, 장군, 대불, 포승, 고대 등 대규모 공단과 수십 개의 중소공단이가동되고 있거나 입주예정이다.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통로인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연계되며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경기지역과 서해안고속도로로 1시간거리에 충청남도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관광접근성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남북으로의 접근성은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좋은 반면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에서 당진까지의 32번 국도도 일부 개통되어서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동서와 남북 도로망을 활용한 관광접근성을 부각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민간주도형 관광상품 기획/운영 네트워크 개발

충청남도의 지역별로 기존의 관주도형 관광상품 개발에서 민간 인적 자원을 육성해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진의 '농촌체험 나드리협의회'는 기존의 농촌체험마을을 민간이 주도가 되어 특성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구이다. 당진 농촌체험 나드리협의회는 당진군내 13개 마을 대표들이 2년 이상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을 같이 받고 모범 사례 지역을 같이 답사하면서 마을의 관광 리더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차별화된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관광기획/운영협의회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보다 경쟁력있고 다양한 관광상품이 발굴될 것이다.

4. 충남-대전-충북 광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 대전, 충청북도의 권역관광개발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통합 관광협력네트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개 지역 통합 관광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통합 관광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권역관광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내의 15개 시군 지자체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의 주체로서도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권역관광상품의 개념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으로 분류되며 역사관광지역으로 그 성격이 차별화된다. 대전은 현재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의 도시로서 그에 적합한 관광매력물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첨단과학전시관을 총사업비 95억원

을 들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정부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1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성과물 제작과 설치에 관해서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별 역할분담 또한 중요하다. 대전의 첨단과학테마의 관광, 유성의 현대화된 숙박시설, 충청남도의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각종 매력물들, 농촌관광, 템플스테이와 농촌체험숙박시설 등 지역별 차별화된 테마로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다면 충청남도의 관광매력도는 배가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적별 성향이나 스포츠관광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주지역 대상으로는 역사문화관광상품이 유효한 관광테마가 될 것이며 일본지역 대상으로는 온천/목욕관광상품이 좋은 관광테마가 될 것이다. 동남아와 중국지역 대상으로는 쇼핑 관광상품 등이 좋은 관광테마가 될 것이다 (박근수 · 이인배, 2006).

5. 한국-일본-중국 광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충청남도의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중국-일본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유통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에서 한국-중국-일본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3국을 아우르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3국의 협력 네트워크는 충청남도에서 새로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SEAN + 3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협력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력기구이다. 이러한 협력기구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관광 협력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13개국의 관광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리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3국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커 보인다.

둘째, 충청남도의 관광개발계획과 부합하는 핵심관광상품의 소재 발굴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중국-일본 관광시장에서 가장 소구될 수 있는 관광테마는 역사문화이다. 현재 일부 개관한 부여의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외국인의 성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내포문화권에 분포되어 있는 중국과 세계 각국에서의 도입문화로 형성된 개방성과 다양성이 있는 내포문화자원과 일본으로 전래된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출해야 한다.

V. 결 론

충청남도는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관광시장의 현황과 관광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관광상품을 제안하려고 시도하였다. 충청남도는 관광자원의 특성이 다양하고 잠재력이 있으나 이러한 관광자원을 연결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인 지역별 관광상품화 노력은 많았지만 광역적인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역축제의 경우도 축제기간에만 당일관광객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방문객들을 숙박관광객으로 유도하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충청남도 16개 시군 지자체간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상품 개발과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광역적 관점에서의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일 또 한 분야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상품의 유통이다.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온라인 시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은 본사가 있는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옥션, 여행사, 항공사, 호텔, 소규모 민박업체 등도 실시간 예약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단순 정보 제공기능만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포털 사이트도 많지 않지만 관광포털 사이트도 앞서 말한 민간 업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활용한 관광상품 홍보기법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위성영상에 기반한 경주국립공원 3차원 관광안내시스템을 선보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이러한 첨단 분야를 충청남도의 관광상품 홍보와 유통에 적극 접목하여야 충청남도의 관광이 품격있게 진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 도정소식 (2006.12.9). '홍콩언론인 펜스키페스티벌 및 한류웰빙체험 취재', www.provin.gangwon.k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07). www.tour.go.kr/stat
- 대전일보 (2007.2.17). '향토자원, 웰빙·관광상품 육성'.
- 대전일보 (2007.2.20). '태안 국제 관광도시 개발 '올인'.
- 대전일보 (2007.2.22). '문화유적 관광자원 벨트화'.
- 박근수·이인배 (2006). 「2008년 북경올림픽 대비 충청남도 대응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2.5). '충남도,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
- 윤양수 (2006.7). '충남관광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열린충남」.
- 조선일보 (2007.2.8). '숨어있는 1인치의 풍경... 그곳을 알려주마'.
- 충청남도 (2005). 「충남2020 정책비전」.
- 충청남도 (2006). 「충청남도 도종합수정계획」.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경주 국립공원 3차원 관광안내시스템」.